

세계 '은반의 별들' 5년 만에 한국에 모인다

한국 2025 피겨 4대륙선수권 유치 2020년 대회 이후 다시 개최 '피겨 신성' 말리닌 등 대거 출전

피겨스케이팅 메이저 국제 대회인 4대륙선수권 대회가 5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18일(한국시간) 연맹 총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5 ISU 피겨스케이팅 4대륙선수권대회는 2025년 2월 4일부터 9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아직 개최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ISU에 수도권 링크장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 경기도 고양시 아이스링크 등이 후보군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피겨 4대륙선수권대회에는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4개 대륙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ISU는 1999년 유럽 선수들만 출전하는 유럽선수권대회가 형평성 논란을 빚자 4대륙 선수권대회를 만들어 비유럽 선수들에게 국제대회 출전 기회를 부여했다.

해당 대회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며 한국은 총 7차



일리아 말리닌

레 개최했다.

한국은 2020년 서울 대회 이후 5년 만에 4대륙선수권대회를 연다. 당시 한국인 남자 싱글 슈퍼스타 하뉴 유즈루(일본)를 비롯해 제이슨 브라운(미국),



차준환

키건 메싱(캐나다), 페어 쉐이원정-한충 조(중국)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내한해 기량을 겨뤘다.

2025년 대회에도 '피겨 신성' 일리아 말리닌(미국) 등 주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연아

연맹 관계자는 "4대륙선수권 유치로 국내 피겨스케이팅 저변 확대와 선수들의 기량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남은 2년간 대회 개최 준비를 잘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자 빙속 박지우 1500m 금 질주

동계U대회 한국 두번째 금

스피드스케이팅 박지우(경희사이버대)가 제31회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동계유니버시아드) 여자 1500m에서 우승하며 한국 대표팀에 두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박지우는 1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 크래프트 올림픽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에서 2분 4초41의 트랙 레코드(경기장 최고 기록)로 2위 아브지크 나탈리아(폴란드·2분6초19)를 큰 격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날 여자 3000m에서 은메달을 딴 박지우는 하루 만에 다시 시상대에 오르며 활짝 웃었다.

박지우는 첫 300m 구간을 전체 5위인 27초 20으로 통과한 뒤 300-700m 구간도 5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무서운 뒷심으로 1위에 올라선 뒤 가법계 우승을 차지했다.

함께 출전한 강수민(고려대)은 2분7초43으로 6위에 올랐다.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5위를 달리고 있다. 1위는 일본(금메달 11개,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이다. /연합뉴스



결승선을 향하여 18일 호주 에델레이드에서 열린 UCI 월드투어 2023 산토스 투어 다운언더 도로사이클 남자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제1 스테이지 결승선을 앞두고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어떤 보급도 없이 홀로 남극점에 산악인 김영미 한국인 최초 도달



산악인 김영미(노스페이스 애슬리틱스 소속) 대장이 어떤 보급도 받지 않고 홀로 남극점에 도달했다. '무보급 단독 원정 남극점 도달'은 한국인 최초다. /연합뉴스

산악인 김영미(42·노스페이스 애슬리틱스 소속) 대장이 어떤 보급도 받지 않고 홀로 남극점에 도달했다.

'무보급 단독 원정 남극점 도달'은 한국인 최초다.

김영미 대장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남극점 도전) 51일째인 마지막 날 27.43km를 걸어 오후 8시 55분에 남위 90도에 도달했다. 전체 누적 거리는 1186.5km, 운행 중 낮의 기온은 섭씨 영하 31도였다"고 남극점 도달을 알렸다.

그는 "많이 추웠지만 좋은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걸었다. 덕분에 부상 없이 열 손가락, 열 발가락 짝 맞춰서 내려옵니다"라고 재치 있는 소감을 남기며 "오늘 약 20km를 걷는 것도 동상이 염려되어 어제 잠들기 전까지 내내 걱정했다.

어떻게 1000km를 넘겨 무거운 썰매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춥고 바람 불던 날들, 흐리고 배고픈 시간이 버거웠지만, 그래도 돌이켜 보면 맑고 따뜻한 날이 훨씬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영미 대장은 지난해 11월 27일 남극 대륙 서쪽 허클리스 인렛에서 출발해 51일 동안 1186.5km를 100kg의 썰매를 끌고 홀로 이동했다. 장비와 식량을 지원받지도 않았다.

2004년 박영석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가 팀을 꾸려 무보급으로 남극점에 오른 적이 있지만, '단독 무보급'으로 남극점에 도달한 한국인은 김영미 대장이 처음이다. 김영미 대장은 아시아 최초 기록도 세웠다.

김영미 대장의 단독 남극점 원정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당구 여제' 김가영 전체 1위로 32강 진출

시즌 3승째에 도전하는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이 전체 1위로 LPBA 64강을 통과했다. 김가영은 17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송센터에서 열린 웰컴저축은행 웰빙 PBA-LPBA 챔피언십 LPBA 64강 서바이벌 경기 1조에서 애버리지 1.400, 90득점을 기록하며 조 1위로 32강 무대를 밟았다.

스통 피아비(블루원리조트)와 히다 오리에(SK렌터카), 이미래(TS삼푸·푸라담), 김민아(NH농협카드), 김예은(웰컴저축은행) 등 우승 후보들도 각각 64강을 통과했다.

LPBA만의 독특한 경기 방식인 '서바이벌'은 4인 1조로 맞대결을 벌여 점수순으로 조 2위까지 다음 라운드 출전권을 얻는다.

모든 선수가 기본 50점에서 출발하고, 한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 나머지 3명의 점수를 1점씩 빼앗아와 한 번에 3점을 얻는다.

최근 5개 투어 랭킹 1위로 64강 시드를 얻은 김가영은 1조에서 용현지, 정다혜, 김혜경과 대결했다. 전반전까지 용현지가 89점으로 치고 나섰고, 김가영이 49점으로 3위 정다혜(41점)와 대결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김가영이 경기 종반으로 접어들어 16이닝째에 15득점으로 60점에 올라 용현지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공격에서는 벅샷 2방을 포함한 하이런 7점으로 21점을 더하며 용현지를 따돌리고 조 1위에 올라 경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당구 여제' 김가영의 날카로운 눈빛.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교섭
2관	아바타: 물의 길
3관	영웅
4관	교섭
5관	유령
6관	유령, 극장판 파워레인저 캡틴포스: 지구를 위한 싸움
9관	교섭, 캐리와 슈퍼콜라,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7관	씨네버블 라일 라일 크로커다일,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8관	씨네버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스위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1-18(수) ~ 2023-01-29(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2-03(금) 19:3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5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2-03(금) 19:3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5

